

지역 소식통

김제시 성덕면 "현장행정으로 소통하다"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시민의 최일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공감행정 추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달은 소식마을 호우피해 농가 현황파악, 소식마을 배수로 준설 현장점검, 두무동 마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방문, 새마을 부녀회 공병수거 봉사 참여, 주민자치 위원회 간담회 추진 등 총 53곳의 관내 마을을 방문하여 시민의 곁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먼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목리 소식마을 인근 비닐하우스농가를 방문하여 농작물 피해 현황 및 침수상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배수로 준공 및 토지 성토 및 지형에 맞는 재배작목 변경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현장을 찾은 마을 주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새벽부터 지역을 돌리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 발 빠른 대처로 안심이 된다."며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성덕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덕면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춘 완주군이 그 기간을 연장한다.

27일 완주군은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금년 12월말까지로 5개월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으며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 농업인이라면 1인 1대 최대 2일까지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임대료 감면액은 약 2300만 원에 달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하반기에도 인력난 가정 및 적기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개최

유튜브 생중계 통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 농악공연·강의 노래 교류 합창제 '호응'

완주군이 문화가 있는 날을 온라인 행사로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27일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지난 25일 2020 문화가 있는 날 '만경8경 그 강에 오면' 사업 중 완주의 풍요 기원, 강의 노래 교류 합창제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기획과 운영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첫 번째 행사로 '완주의 풍요기원-완주 농악의 뿌리를 찾아서', 두 번째 행사로 '강의 노래 교류 합창제'를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 행사로 진행했다.

오전 9시부터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생중계된 완주의 풍요기원 행사는 완주군 13개 읍면 농악단이 출연해 완주 고유의 농악공연을 선보이고 남사당

대전지회, 현 국립민속국악원 지도단원 김경주 무용수의 특별공연도 이어졌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된 '강의 노래 교류 합창제' 행사는 만경강 지류 인접 도시 합창단의 교류 합창제로 완주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초청돼 연주회가 진행됐고, 완주소년소녀합창단, 전주위더스 합창단, 익산YWCA 합창단, 군산은파어머니합창단, 김제시립합창단이 출연해 아름다운 만경강의 모습을 노래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은도체코, 방문자 명부작성, 손 소독 등 생활위생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됐다.

완미너 문화관광과장은 "관내 다양한 예술기관과 협력해 지역 곳곳 지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지난 25일 벽골제 마을에서 외국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외국어자원봉사자 워크숍

김제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소통의 자리 마련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5일 벽골제 마을에서 외국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외국어 자원봉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와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 양영이 사무총장의 자원봉사 기본교육,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 이형수 축제팀장의 지평선 축제 프로그램 교육 등을 비롯해 외국어자원봉사회 활동 논의 등 회원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준배 시장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으로 인한 시각 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 자리가 자원봉사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가 되어, 더불어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일익을 담당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외국어자원봉사회는 민선7기 박준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어 자원봉사자수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2월 결성되어 각종 국제행사 시 통·번역 봉사를 통하여 김제시를 방문·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언어소통에 불편함 없도록 도움을 받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향후 계절근로자 통역을 통한 농가지원, 도내 국제행사 참여 등 그 활동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P사 기사에 유감" 표명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

지난 17일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은 인터넷 언론매체인 P사가 지난 19일 보도해 논란이 된 "김제시의장단의 '수상한 밀실회합'...제명대상 국회의원"과 "민찬파티" 제목의 기사를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언론매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원 구성 밀실 담합을 위한 화합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음식값을 모두 지불하고, 그 음식점에 온 의장 배우자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하였지만, 온 의장은 이날 음식값은 일반인이 아닌 온 의장 본인의 개인카드와 현금으로 직접 지불 하였으며 배우자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온 의장은 사실과는 다른 해당 기사를 근거로 시내에 불법 플래카드가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시민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는 등 어렵사리 원 구성을 마무리한 시의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고려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할 계획이며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 법적 대응 또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공공형 어린이집과 업무 협약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남인)가 공공형 어린이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7일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도은, 리틀대통령, 사과나무, 사랑나리, 신사임당, 새싹뜰, 예람관내 등 7개 공공형 어린이집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0~7세 영유아는 모든 발달단계의 결정적 시기로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교사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협력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기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의뢰 등 협력체계 구축,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위기가동청소년 치료연계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마음건강교육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다.

이외에도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심층사정평가, 교사 및 부모교육, 정신건강 캠페인 등 다양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강남인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정신건강 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지평선장학숙 입학생 추가 모집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진학으로 내고장 학교보내기 실천을 위해 설립한 김제지평선장학숙(서울장학숙)의 입학생을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기존 입학생 퇴보(군임대 등)로 운영가능 호실이 확보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입학생 모집당시 일정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관내출신 재경대학생들에게 추가 입사회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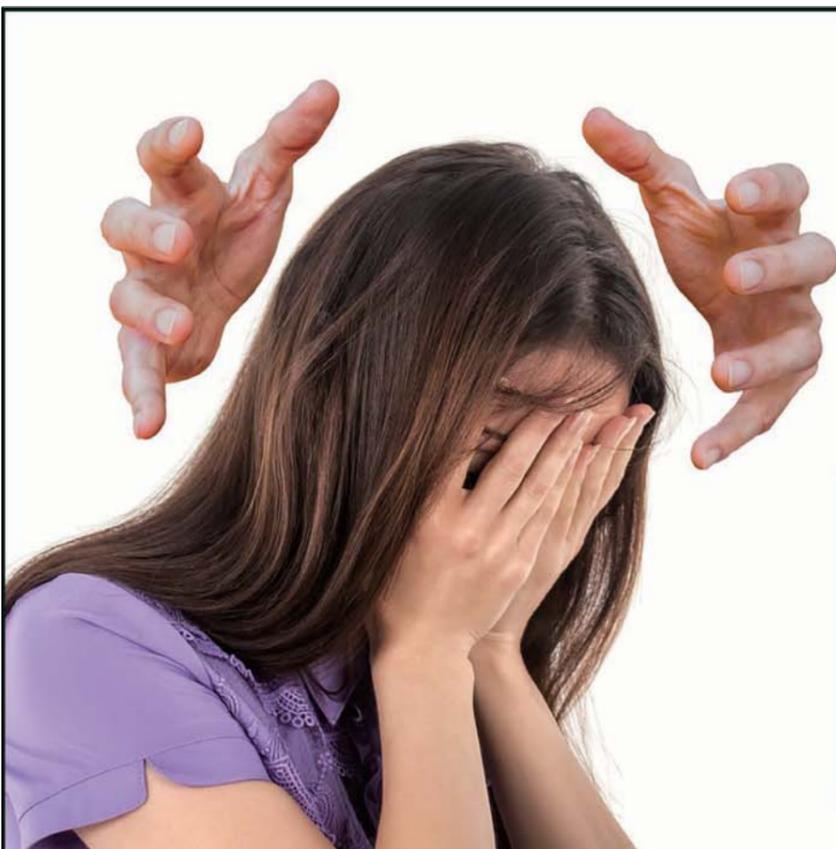
모집인원은 3명(남,재학생)이며, 김제시 소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의 자녀로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면 신청 가능하며, 입학생으로 선발되면 2020년 8월 말부터 2021년 2월까지 월 20만원 정도의 저렴한 학사비용으로 독립적인 1인 1실 원룸 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입학생은 성적 50%와 생활정도 50%를 반영하여 선발할 계획으로,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의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입사원서 접수는 8월 10~11일 이를 관으로 시청 인재양성과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입학생 합격자는 8월 14일 발표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김제사랑장학재단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김제지평선장학숙에서는 31명의 학생들이 입사 중이며 최근, 입학생들은 김제지평선장학숙이 위치해있는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습·인성·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1:1 멘토링을 수행해, 본인들이 받은 수혜를 지역사회에 나누어 주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